



2021년 주요산업 전망과 지역 대응방향

2019. 11.

2021년 주요 산업 전망과 지역 대응방향

1 개요

□ 2021년 산업전망 개관

- (비대면 트렌드 지속) 코로나19 안정화 후에도 비대면 트렌드는 지속 전망
 - 원격교육, 재택근무 근무 등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어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지속 성장 전망
 - * 2021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6.2%,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1.2% 성장 전망(세계 반도체무역통계기구, 2020)
- (新가전 수요 증가)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관련 가전제품 성장
 - 주요국의 민간소비 회복 전망에 따라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과 접목된 新가전제품 성장 예상
 - * 주요국의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 (중국) 10.9%, (미국) 3.9%, (유로존) 6.2%

□ 주요 산업 전망

- 정부투자 확대와 주요국 봉쇄 완화 등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주요 산업 업황도 개선 예상

[주요 산업별 생산 및 매출액 증가율 전망]

구분	산업생산			매출액 증가율(%)		
	2019	2020P	2021E	2019	2020P	2021E
이차전지(조원)	21.6	27.8	36.7	16.5	31.0	33.3
모바일(억대)	13.7	12.3	13.3	4.3	-11.2	9.8
반도체(10조원)	10.9	12.1	13.8	-13.4	8.0	9.2
자동차(10만대)	39.5	36.7	37.3	7.2	-8.1	3.2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2021년 하나 산업 전망

□ 이차전지

○ (현황) 글로벌 수요 위축

- 세계 전기차(EV) 배터리 사용량은 감소, 국내기업의 신규납품·생산능력 증대
- * '20년 1~7월 중국 EV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
- * 국내기업의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9.1~7월 15.9%에서 '20.1~7월 35.6%로 확대
- 글로벌 자동차社들은 '22년까지 새로운 전기차(450종 이상) 출시계획

○ (전망) 글로벌 EV 수요 확대로 '21년 활황 예상

- 급증하는 글로벌 EV 수요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생산능력 확대
- * 글로벌 EV 배터리 수요는 '20년 120GWh 내외에서 '21년 170~180GWh로 증가 전망
- *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은 주요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증설 진행 중
- 다만 배터리 안전성 문제 제기 가능성 등 잠재적인 리스크에 유의

□ 모바일

○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축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급망 차질과 수요 위축으로 글로벌 시장 침체
- * 글로벌 출하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경우 중국 외 지역이 침체

○ (전망) 점진적 수요 회복 하에서 '21년에는 시장 성장세 회복 전망

- 교체수요 유발을 위한 신규 스마트폰 공급 증가와 5G폰 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회복
- * '20.2분기 기준으로 LTE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 5G 출하량은 133.5% 증가
- * '20년 약 10%의 감소를 보인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1년 약 8% 성장 예상
- 미국 제제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화웨이의 점유율 하락으로 삼성 등 반사이익 예상
- * 반사이익은 중국 제조사에 집중되겠지만 일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수혜 존재

□ 반도체

- (현황) 짧은 코로나 특수 이후 전방산업 부진으로 하락세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수요 정체로 하락
 -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상용화와 5G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 (전망)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비대면 트렌드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메모리·비메모리 수요 촉진
 - * (메모리) 노트북·서버 수요(비대면) 증가, (비메모리) 팹리스·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
 - 글로벌 시장 호조로 국내 반도체 생산액·수출액('21년)은 증가 예상
 - * '21년 국내 생산액은 13.8% 증가, 수출액은 22.1% 증가 전망

□ 자동차

- (현황)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감소, 수출부진으로 국내 생산은 감소
 - '2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17.2% 감소 예상
 - 국내의 경우 수출이 크게 감소
 - *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로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37.2% 감소
- (전망) 글로벌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증가 전망
 - '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모색과 판매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예상
 - * 미국 및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20년) - 8%, - 10.2% → ('21년) 4.5%, 6% 전망
 - 국내시장은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 (VR/AR) 비대면 영향으로 제조·의료·교육 등 산업별 특화된 고부가가치 VR/AR디바이스의 수요 증가 예상
 - 국내는 지속적인 통신 인프라 확충 및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부문 투자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
 - * 한국의 AR·VR 디바이스 투자 규모는 2023년에도 2조원 수준
 - * 2024년 전세계 시장 AR·VR 디바이스 투자 규모는 약 10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삼성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사의 VR 디바이스 출시 계획이 불투명해 AR·VR 장비의 외산 종속성이 심화
- (디스플레이) 글로벌 TV 수요 증가, 모바일용 OLED 호조세, IT패널 강세 예상
 - 비대면 영향으로 노트북 등 IT기기 출하량 증가, 모바일용 OLED도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호조세 예상
 - 내년 고급 TV 시장의 경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로 더욱 치열
- 그 밖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의 결합, 통신업계의 5G 기지국 본격 설치, 자율주행차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증강현실 안경 등 여러 기술 트렌드가 예상

3

구미지역 산업현황

□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

- (가동업체/고용인원)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2,493개이며, 이 중 가동업체는 2,050개, 그리고 고용인원은 82,495명('20.8월 기준)
- (생산액/수출액) 생산액은 24조5,939억원이고, 수출액은 10,390백만달러('20.8월 누계)
- (업종별) 업체수 기준으로 기계업종이 많으나, 고용인원·생산액·수출액에 있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구분	입주업체 (명)	가동업체 (명)	고용인원 (명)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달러)
음식료	13	8	603	4,630	-
섬유의복	132	115	3,163	6,100	233
목재종이	54	44	614	1,600	12
석유화학	270	227	5,330	23,464	696
비금속	48	39	3,513	6,997	136
철강	34	30	927	3,460	83
기계	1,039	872	20,678	37,184	350
전기전자	734	628	45,408	158,907	8,833
운송장비	36	28	1,759	3,543	49
기타	13	11	55	55	-
비제조	120	48	445	-	-
합계	2,493	2,050	82,495	245,939	10,39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주: 입주업체·가동업체·고용인원은 '20.8월 기준이며, 생산액·수출액은 '20.8월 까지 누계

□ 신성장 산업육성 및 추진 동력 마련

-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산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내 예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 *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 (이차전지)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상생형 구미 일자리)
- 신기술 관련 기업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사업 연계 추진
 - 지역지역 및 지역이전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발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예산('21년): 1,445억원
 - * 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 산업용 햄프(안동)
-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등에 접목 가능한 신산업 발굴
 -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연계), E-모빌리티 국산화 실증사업 확대 추진 등

□ 신산업 분야 관련 제품화 등 조기 성과 창출 도모

- 신산업 관련 既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사업화·제품화 등 조기 성과 창출 추진
 - * 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 홀로그램 융합 기술개발, 5G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 더불어 개발 완료 제품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 미래지향적 산업정책 지속 추진

- 제조업 활성화·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신기술과의 융합이나 제조업의 서비스화 방안 마련
 - 5G 또는 AI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제조지원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기획